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2월 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6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젊은 날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이 두 향 -

할렐루야!

저는 은혜와진리교회 판교성전에서 청년봉사선교회 회장으로 선교회와 교회를 섬겨 봉사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20대의 혈기가 왕성한 청춘의 때에 주님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사명을 다할까 하는 열정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굳센 믿음과 충만한 사명감을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로 어릴 때부터 꾸준히 교회학교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였지만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직후 한때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가 없어 하루하루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교회학교 교역자님과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며 교회학교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 권면을 받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보조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 하루하루가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크고 깊어져서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교회학교에서 봉사한 후 병역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입대하기 전에 월요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토요일 청년예배, 주일예배 등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즐겁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다가 처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복돋워 주시며 저를 군 선교

사로 파송하셨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해주셨습니다.

훈련소를 나와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어머니께 부탁드려 은혜와진리소식지를 매주 우편으로 받아서 토요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며 혼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대 내의 빈 사무실에서 두세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복음지에 실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한 글자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필사하였습니다. 야간에 근무가 있을 때는 근무를 마치고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야간근무가 없을 때는 지휘관님께 다음날 조기 기상을 신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굳세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저에 대한 소문이 온 부대에 퍼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저는 대대 교회의 군중병 추천을 받았습니다. 대대 교회 목사님의 호출을 받고 면담을 거쳐 신학생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군중병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군 복무중에도 주님과 교회를 섬겨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빈 사무실을 찾아서 어렵게 드리던 가정예배도 부대의 교회에서 오랜 시간 자유롭게 마음껏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군중병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대에 신학생들이 들어오도록 섭리해 주시고 함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군 선교 활동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각종 자료를 활용한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어서 불신 장병들을 전도하고 크리스찬 장병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혼자 드렸던 가정예배와 모임이 10명 이상의 신학생과 교회 리더들이 모이는 구역예배 모임으로 발전되었고, 부대 교회의 주일예배에도 매주 100명 이상의 장병들이 꾸준히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 여름에 우리 교회의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에 모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성령충만기도회 시간에 저는 전역한 다음에 남은 20대의 기간에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특히 청년봉사선교회의 부흥과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몇 달 후 2017년에 제대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청년봉사선교회의 임원 직분을 맡도록 권면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한 대로 열심히 봉사하며 선교회를 섬겼습니다. 이후 저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직장도, 교회 봉사도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청년봉사선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을 때는 대통령 탄핵사태로 시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153 HOLY PROJECT'에 교육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 교육팀을 구성할 때부터 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 교육과 기타 여러 가지 관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깊고 풍성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성경적인 신앙관과 가치관과 국가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 성도로서의 신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앞으로 북한과 중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널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그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훈련하며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귀중한 경험은 제가 오늘까지 여러 해 동안 청년봉사선교회의 회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저는 20대를 지나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쓸모없던 저를 연단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절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20대를 온통 감사한 하나님과의 추억, 교회에서의 추억, 청년 동기와 선배들과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과분한 복음,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은 성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활력 넘치는 20대를 보냈습니다.

저의 영혼을 거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젊은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직장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도록 함께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년 겨울수련회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저의 이 30대와 앞으로 만날 40대, 50대를 넘어 저의 본향인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저를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구역공과

제1권 (제5단원 : 예수님의 가르침) (제34과) 재물에 대한 가르침

- 본문 : 누가복음 12:16-21
- 요절 :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20)
- 찬송 : 102장(새찬송가 94장), 356장(새찬송가 216장)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의, 식, 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재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 삶의 궁극적이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추구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적인 존재이며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보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성도들이 이 세상 재물에 대하여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부자의 어리석음

한 부자가 농사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부자의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라는 말씀은 이 진리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는 영혼의 즐거움과 평안을 재물에서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이 영혼의 참 즐거움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6:19,20) 이 땅에 쌓아 둔 재물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한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가 빈 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듯이 빈 손으로 떠나는 것이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定)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딤펴전 6:17) 영원한 상급을 위해 슬기로운 투자를 해야 합니다.

2.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

하나님은 부자를 보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 12:20)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평소에 재물을 모으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만 관심이 있었지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한없이 오래 살 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는 세상 정욕에만 취해서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그날 밤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일생동안 온갖 힘을 기울여 모아 놓았던 세상 재물은 그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으며, 이 땅에서의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그의 계획도 모두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3. 재물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

재물은 인간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추구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탐욕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재물을 맡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성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해,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재물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쾌락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았던 꾸중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며, 복음 전파와 선한 사업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실 뿐 아니라 마음에 참 평안과 장래에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